

2024년 춘계학술발표대회 : 일반부문

## 지역성 표현의 장(場)으로서 건축의 '표면'

- 제주 출신 건축가 김한섭의 작품을 중심으로 -

### The Architecture Surface as a Ground for Regional Representation

- A Case Study of Kim Han-Seop, a Jeju-born Architect -

○고 정 희\*      백 진\*\*  
Ko, Jeong-Hee      Back, Jin

#### Abstract

After modernism, the "surface" of architecture became a place where the conflict between production and representation is revealed, separated from structure. In the process of adopting modernism in Korea, discussions on "traditionality" began in earnest in the 1960s, which continued into discussions on "locality" in the 1990s. Within this context, architect Kim Han-Seop, active mainly in the Jeonnam and Jeju regions, focused on the issue of "locality" at a relatively early stage, aiming to actively reveal this in his works. Through the analysis of two of Kim Hansup's architectural works, it can be seen that the "surface" functioned as a field for expressing locality through method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windows and walls, the ratio of surface elements, the depth of layers, and the construction of materials.

키워드 : 표면, 지역성, 모더니즘, 표상, 텍토닉, 김한섭

Keywords : Surface, Regional Identity, Modernism, Representation, Tectonic, Kim Han-Seop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모더니즘 이후 건축의 '표면'은 구조로부터 분리되어 무언가를 표상하는 것의 장(場)이 되었다. 예를 들어, 고전적인 오더의 표상인 장식(decoration)은 건물에 특정한 분위기를 만들거나 성격을 부여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더 나아가 도시적 맥락 속에서 데코룸(decorum)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건축의 '표면'을 통해 창과 벽 등의 '기능', 혹은 '재료'나 '구조'를 표상하기도 한다.

외부 환경과 건축물 내부 공간의 경계로서 '표면'은 외부 환경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게 되므로 건물이 지어지는 지역의 기후적 특성이 가장 많이 고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과거의 건물들은 기후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어졌으나 근대의 건물들은 새로운 기술과 재료가 기존의 구축 공법을 대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거의 '전통적인 이미지'는 지워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존의 전통적 이미지를 구조에 통합하는 방식이 아닌 건물의 '표면'에서 드러나도록 한다.

그렇다면 건축의 '표면'은 지역성을 표상하는 장으로써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르 코르뷔지에를 비롯한 많은 동시대 건축가들의 건축적 특징인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입면'은 한국에 도입된 이후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각 지역의 풍토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변형되고 진화해왔다. 이러한 변형과 진화를 통해 드러나는 '지역성'을 포착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며, 이를 통해 사라져가는 1960-70년대의 지역 건축물을 기록하고 조명함으로써 이를 건축의 '표면'과 '지역성'을 주제로 하는 건축 역사의 한 축에 위치시키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주 출신 건축가 김한섭의 작품을 통해 모더니즘이 한국에 수용되는 양상과 건축의 '표면'을 통해 지역성이 표현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표면'에 대한 주요 저서들을 중심으로 건축에서 '표면'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진화되어왔는지 보고, 한국의 모더니즘 수용과정과 지역성 논의 양상을 문헌고찰을 통해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이후 작품집과 선행 연구를 통해 김한섭이 건축을 학습한 배경과 김한섭의 건축관, 주요 작품 목록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성' 표현이 나타나는 '표면'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김한섭의 건축 작품 중 전남대학교 농대 본관(1963)과 제주 동문 백화점 및 동양극장(1963)을 분석한다.

#### 2. '표면'에 관한 논의와 한국의 '지역성' 담론의 등장

##### 2.1 건축에서 '표면'에 관한 논의)

\*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jub34@snu.ac.kr)

이 연구는 2024년도 4단계 BK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관리번호 4120200113771)

(1) 고트프리트 켈퍼, 「The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 (1851)

고트프리트 켈퍼(Gottfried Semper)는 공간형성의 관점에서 카리비안의 오두막집의 사례를 통해 건축의 기원을 네가지 요소의 복합적 관계로 파악한다. 건축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는 '화로'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세가지 요소 - 지붕(roof), 에워싸는 표면(enclosure), 토루(mound) - 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켈퍼는 직조(weaving)된 비내력벽으로부터 나온 기술을 인간의 근원적인 기술로 보았다. 여기서 직조된 벽의 '뒤에' 있는 견고한 벽은 공간의 형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구조와 외피의 분리를 뜻한다.<sup>2)</sup>

(2) 아돌프 로스, 「Ornament and Crime」 (1908)

아돌프 로스(Adolf Loos)는 공예와 예술을 구별하면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일상용품(공예품)에서 등장하는 과도한 장식을 비판한다. 한편 로스는 켈퍼의 외피에 대한 이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는 건축의 외피에서 재료의 성질(nature of material)과 그것의 운용(operation)을 위한 장식은 허용한다. 루스는 이러한 장식은 건축이 집단적인 기억을 내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술의 범주에 속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한다.<sup>3)</sup>

(3) 케네스 프램튼, 「Studies in Tectonic Culture」 (1996)

케네스 프램튼(Kenneth Frampton)은 '표피'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 역할이 아닌, 그 건축물이 사용하는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과 건축을 이루는 구조적 논리를 바탕으로 그 시대가 지닌 사회적 및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담아내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램튼은 '표피'를 사회·문화적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적 형태로서, '상징구조'와 '표상적 텍토닉'이라는 시각적이고 의미론적인 층을 형성하는 장으로 보았다.<sup>4)</sup>

(4) 데이비드 레더베로우, 「Surface Architecture」 (2002)

데이비드 레더베로우(David Leatherbarrow)는 오늘날 건물의 외피가 구조로부터 독립되면서 건축의 표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산(production)과 표상(representation)의 갈등관계에 주목한다. 건축물이 표상하는 바는 시공 방식의 시각적 반영과 과거 양식의 회화적 재현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이러한 담론은 이미 19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근대성과 전통성, 구축과 상징, 기술과 삶의 문제에 대한 확장이기도 하다.<sup>5)</sup> 레더베로우는 건축을 추상적 계획의

1) 본 연구에서 표면(Surface), 표피(Skin), 외피(enclosure)는 '공간을 에워싸는 표면'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의미상 동일하다고 본다.

2) 오상은, 근·현대 건축표면의 가림과 드러냄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 켈퍼의 피복론을 통한 텍토닉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3호, 2014, p.30

3) 강태웅, 루이스 설리반과 아돌프 로스의 '기능'과 '장식'의 진의(眞意)와 그 연관성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 17권 5호, 2008, p.64-65

4) Kenneth Frampton, Studies in Tectonic Culture, MITPress, 1996, p.16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지의 지형과 기후, 도시적 맥락, 건축의 생산환경과 기술적 여건, 건축 기능의 작동, 시간을 통한 변화 등 실제적인 실체로서 당면하는 구체적 요인들까지 유기적으로 엮어 건축의 의미를 읽어냈다.<sup>6)</sup>

## 2.2 한국의 모더니즘 수용과정과 지역성 담론의 등장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붕괴되고, 한국인들의 정신과 물질세계가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대와 전통의 충돌은 불가피했으나 1960년대 이전까지는 이 문제를 다룰 만한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개발시대에 이르면서 국가적인 시설들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때 전통 논쟁이 분출된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성'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지면서 1990년대까지 계속된다.<sup>7)</sup> 1980년대 중반 이후 전통이 지역성으로 대체되면서 근대성과 지역성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 시기 건축가들에게 중요한 과제는 '그 건물이 한국적인가'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인가'를 묻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한국 건축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건축으로 정의된다.<sup>8)</sup>

## 2.3 건축물 작품 분석의 틀 설정

앞서 살펴본 '표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각 이론가마다 '표면'에 대해 다루는 내용과 그러한 내용이 표현되는 건축의 요소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건축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가능해지게 된 수평창과 관련하여 '창과 표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전체 표면에서 전통적인 구조와 기능의 표상으로 작동하는 그리드에 대해서는 '각 요소들 간의 비례체계'와 그러한 표면을 구성하는 '레이어들의 깊이'를 살펴본다. 또한 실제의 생산환경과 기술적 여건을 드러내는 요소로 '재료의 구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1. 각 이론가들의 '표면'에 대해 다룬 내용과 표현

	켈퍼	로스	프램튼	레더베로우
내용	표피	장식	표상	맥락
표현	직조된 벽	재료의 성질	텍토닉	대지, 기능, 기술, 변화

## 3. 김한섭의 건축 학습 배경과 건축관

### 3.1 김한섭의 건축 학습 배경

선행연구와 작품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김한섭의 건축관 형성과정을 재구성한 결과, 김한섭의 건축관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두 차례의 일본 유학인 것으로 파악된다.

#### (1) 1차 일본유학과 박길룡의 영향 - 민가연구에 대한 관심

5) 데이비드 레더베로우, 「표면으로 읽는 건축」, 동녘, 2009, p.9-18

6) 위의 책, p.292-297

7) 정인하, 「한국의 근현대건축: 다이어그램으로서의 역사」, 열화당, 2023, p.221-222

8) 위의 책, p.357-358

김한섭은 만주국 국무성 건축국에 근무하며 일인 고급 기술자를 상대하면서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당시 만주국 총 건설국장이던 가시하라의 추천으로 일본대학 고등공업학교에 진학한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 다른 한국인 유학생 오영섭과의 관계를 통해 민족의식의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졸업 후 “우리 것을 찾아야겠다는 일념”<sup>9)</sup>으로 귀국한 후 박길룡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며 건축 활동을 시작하였다. 박길룡은 한국적인 생활문화의 구현을 위해 개량한옥 설계와 민가연구 등의 실무와 연구 활동을 병행한 인물로, 김한섭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2) 2차 일본 유학과 르 코르뷔지에의 영향 - 모더니즘 건축 어휘의 습득

1943년 박길룡이 사망하면서 김한섭은 전남지역에서 건축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에는 전남지역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김한섭이 자연스럽게 전남지역의 여러 건축 단체 설립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건축 활동이 중단되면서 김한섭은 또다시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떠나게 된다.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연구 활동과 실무활동을 병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김한섭은 르 코르뷔지에에게 수학했던 건축가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당시의 국제적인 건축의 흐름을 체득할 수 있었다.

#### 3.2 김한섭의 건축관

김한섭이 생각하는 건축은 ‘자연적 제약과 사회적 제약을 동시에 받는 생산물’이다. 그는 민가 연구를 통해 도시적 맥락이나 삶의 양태, 생산기술의 현실적 조건과 같은 사회적 제약의 요소를 체득함으로써 민족적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sup>10)</sup> 따라서 김한섭에게 ‘민족 건축물로서의 풍토건축’은 그의 건축관의 핵심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생활 수준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고 그 지방의 재료를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가 가장 활발하게 건축 활동을 한 시기인 1940-70년대의 우리나라 건축의 담론은 국가적 차원의 전통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고,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지역성’에 대한 담론이 중요하게 등장한 것을 미루어보면, 김한섭은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지역성’, ‘풍토’ 등에 주목하여 건축으로 드러내고자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3.3 김한섭의 주요 건축 활동과 작품 목록<sup>11)</sup>

김한섭은 2차 일본 유학의 전후를 기점으로 전남과 제주지역에서 독립적인 건축 활동을 시작한다. 작품집에 실린 건물들을 중심으로 이 시기의 건축작품들을 살펴보면,

9) 금성종합설계공사, 「건축가 김한섭」, 토탈디자인, 1984, p.24

10) 금성종합설계공사, 「건축에 대한 이념과 사상 - 김한섭」, 『건축가 김한섭』, 서울, 토탈디자인, 1984, p.18

11) 김한섭의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목록화하였다.

학교와 관공서 건물을 가장 많이 설계하였으며, 일부는 빌딩, 경기장, 극장 등 상업시설을 설계하였다.

표2. 김한섭의 건축활동과 전남·제주지역의 주요 작품

활동	연도	주요 건축작품
전남도청 영선계장	1946	전남의대 계단강의실
전남대 부교수	1957	광주사범대학 광주 용아빌딩
	1958	광주 Y.M.C.A 회관
	1959	광주사대부속국민학교
한국건축가협회 전남지부 창설	1960	전남의대 간호원기숙사
활동거점을 서울로 이전	1963	서광주 세무서 <b>전남대학교 농과 본관</b> <b>제주 동문백화점 및 동양극장</b>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1965	광주무등경기장 및 야구경기장
		남제주군청사
금성건축 설립	1969	해남군청사
		광주은행 남부지점
	1971	제주상업고등학교
	1972	제주대학 수산학부 임해연구소
	1973	제주신문사옥

#### 4. 김한섭의 건축작품 분석

##### 4.1 건축작품 분석 대상

김한섭은 주로 전남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건축 활동을 하였는데, 특히 1963년을 기점으로 주요 활동 지역이 전남에서 제주로 이동한다. 이 시기는 한국의 모더니즘 수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근대와 전통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건축계의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개발시대의 ‘국가 정체성’을 다루고 있었다. 김한섭은 이른 시기부터 ‘지역성’을 자신의 주요한 건축관으로 삼았기 때문에 1963년의 작품들을 한국에서 ‘지역성’을 주제로 다루는 초기 단계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63년의 건축작품 중 현존하는 두 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작품분석을 진행하였다.

##### 4.2.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본관

표3.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본관의 건축물 개요

착공연도(준공연도)	1963년(1965년)
건물면적 / 규모	3,200m <sup>2</sup> /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부-철골)
용도	학교

##### (1) 창과 표면의 관계 및 비례체계

건물의 표면은 수평띠의 창으로 구성되어 층별 구분이 되고, 긴 수평띠를 얇은 수직 부재로 리듬감 있게 분할하고 있다. 전면부 중앙의 입구는 얇고 긴 수직선과 두꺼운 슬라브 띠의 대비, 짙은 갈색의 색채로 건물의 중앙홀이라는 공간의 기능을 강조한다. 또한 측면의 창과 표면의 관계는 벽과 개구부의 관계에 그치는 데에 반해, 중앙부에서는 전면이 앞으로 돌출되면서 표면에 깊이감이 생긴다. 중

양부 우측은 기존 표면의 비례를 또다시 3분할 하는 비례가 등장하는데, 이는 계단실의 위치로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며 규칙적인 비례체계에 비대칭적인 변주를 만들었다.



그림1. 전남대 농대 본관의 전면부(좌)와 후면부(우)  
[출처: 도미이 마사노리]

(2) 표면 레이어의 깊이와 재료의 구축성

내부를 보면 기둥들이 외벽으로부터 후퇴하여 배열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김한섭이 표면을 구조로부터 분리하여 계획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표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면에 다층적인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는데, 옥상 부분의 사진을 보면 그리드의 가로 부재와 세로 부재의 돌출 정도가 다르며 사이 표면의 깊이감도 다르게 형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면의 재료는 콘크리트와 일부 전벽돌이 사용되었는데, 그리드 부분과 면 구성 부분의 마감처리를 달리하여 질감과 색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림2. 전남대 농대 본관의 내부 기둥배치(좌)와 표면 상세(우)  
[출처: 도미이 마사노리]

4.3 제주 동문백화점 및 동양극장의 건축물 개요

표4. 제주 동문백화점 및 동양극장의 건축물 개요

착공연도(준공연도)	1963년(1965년)
건물면적 / 규모	3,690m <sup>2</sup> / 본관 2층, 극장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부-철골)
용도	시장점포, 사무실, 다방, 이발소, 전당포, 극장

(1) 창과 표면의 관계 및 비례체계

건물의 표면은 복합 시설이라는 용도를 표현하듯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례체계는 내부의 기둥 배열과 동일하지만, 표면의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해 매우 역동적인 인상을 갖는다. 또한 저층부에서 내부의 기둥 배열이 그대로 표면에 드러나면서 이것이 입면을 구성하는 그리드가 되어 중층부의 전면 유리 부분의 창틀의 비율로도 이어진다. 여기서 전면 유리는 창과 벽의 관계가 창이 곧 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부 변화한 모습을 보이며, 계단실의 창은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되었다.



그림3. 제주 동문백화점 및 동양극장의 정면(좌)과 우측면(우)  
[출처: 김태일]

(2) 표면 레이어의 깊이와 재료의 구축성

기둥 배열이 표면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된 이유는 내부 평면의 배치와 관련되어 있다. 1층에는 시장점포가 들어서기 도로와 면한 저층부가 쇼 윈도우 기능을 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면 자체에서는 비교적 평면적이지만 내부로의 투명성은 높은 모습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논리는 중층부의 전면유리창으로도 이어진다. 재료는 콘크리트이며 지면과 맞닿는 부분과 우측 코너의 계단실 부분을 타일로 마감하여, 표면에서 다양한 질감을 병치하고 있다.



그림4. 제주 동문백화점 및 동양극장의 저층부(좌)와 옥상부(우)  
[출처: 저자 촬영(좌), 김태일(우)]

5. 결론

모더니즘 이후 건축의 '표면'은 구조로부터 분리되어 생산과 표상의 갈등 관계가 드러나는 곳이 되었다. 한국에 모더니즘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1960년대에 이르면 본격적으로 '전통성' 논의가 시작되며, 이는 1990년대의 '지역성' 논의로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전남·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건축가 김한섭은 1960년대 초,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먼저 '지역성'의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를 건축작품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김한섭의 두 건축작품의 분석을 통해, '표면'이 창과 벽의 관계, 표면 요소들의 비율, 레이어들의 깊이, 재료의 구축성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성 표현의 장으로서 작동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진 자료를 통해 외부에서 보여지는 형태와 비례, 재료 등은 유추할 수 있었지만,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건축물의 도면과 다이어그램을 분석하여 내부와의 관계와 표면의 다층적인 레이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한다.